

제3기 청와대 불자회 출범

참선·명상 등 체험위주 실행

제3기 청와대 불자회가 1년 여의 활동 공백을 깨고 맞을 올렸다.

청와대 불자회(회장 조운제·경제보좌관, 이하 청불회)는 6월 2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참여정부 들어 첫 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족된 제3기 청불회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재결성된 것이다.

청불회는 올 4월 초 준비모임을 갖고 제3기 초대회장에 조운제 대통령 경제보좌관, 사무국장에 성재도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을 각각 추대·선출했다. 청불회는 이후 한 달간의 회원모집에 들어가 현재 40여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지도법사는 내달 열리는 정기법회에서 위촉하기로 했다.

청불회는 우선 정기적인 실행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 시절 활동했던 제2기 청불회가 회장 중심의 대외활동에 치중한 결과, 회원들의 지속적인 실행활동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불회는 이를 위해 서울 성북동 김상사에서 매월 두 차례의 정기법회를 병행하고 분기별 사찰순례도 추진한다. 특히 청불회는 참선·명상 등의 수행 프로그램을 도입해 체험 중심의 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선 법회는 법문 위주의 정기법회와 별도로 매달 한 차례씩 참선의 이론과 자세, 호흡법, 생활참선법 등으로 진행되며, 앞으로 참여대상을 청와대 일반직원에까지 확대해 신입회원의 가입도 유도할 방침이다.

청불회는 이와 함께 '근무 전 명상집 한줄 읽기' 운동도 전개한다. 이 운동은 국정을 수행하는 불자 공무원으로서 '다



△청와대불자회가 참여정부 출범이후 6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첫 법회를 열고, 참불자로 태어나기를 발원하고 있다.

매달 2회 법회·근무전 명상집 읽기운동

회장 조운제 보좌관, 지도법사 내달 위촉

을 다스리기'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성 국장이 쓴 <마음을 바꾸니 인생이 즐겁다>란 명상집을 교재로 사용한다.

이날 조운제 청와대불자회장은 "1600년의 한국불교역사는 민족 고유의 정신을 선양하고 자연환경을 수호하면서 그 시대의 중심사상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불교사상에 입각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이어 법어를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는 국가의 중추기관인 만큼, 항상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는 불

자들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법문했다.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사부대중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인양시청 공무원불자회

시청 대강당서 창립법회

인양시청 공무원불자회는 지난 6월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병행했다.

이날 법회는 불자회 지도법사 정락 스님(수원 운주사 주지)의 법문과 김삼문 초대회장의 경과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지역회 활성화·화합 모색

운불련 6대 회장 조흥인 불자

"전국 24개 지역회가 화합된 모습으로 포교와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대전지역회 사무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이하 운불련)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된 부산지역회 조흥인(51·법명 석천·사진) 회장은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조회장의 말은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간의 내부갈등을 의식한 말이지만 "비운 뒤에 땅이 더욱 굳는다"는 말로 이미 화합의 청신호가 켜졌음을 자신했다.

조회장은 6월 19일 임시총회를 통해 지역회별 대의원을 동등하게 하고, 회장



매년 1~2회 권역별 연합법회 상호교류·정보교류의 장으로

인기회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도 군소 지역회 활성화와 화합을 다지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군소 지역회 지원과 활성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조회장은 1년에 1-2회 권역별 연합 법회를 열어 가까운 지역 회원들간의 상호 교류를 다지고 법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정리해 할 계획이다.

조회장은 이와함께 "전국 3천여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교통난해, 장애인 수송봉사, 소년소녀가장돕기, 장기기증 홍보 등의 봉사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운불련은 12일 부산 법이서 설립전에서 '한국운불련 회장' 대법회 및 취임법회 불행회와 제도와의 자리를 갖는다. 부산=천미희 기자

우리불자회는요

전북 장수군청 불자회

우리 장수군은 3·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시며 한글 경전 편찬 및 찬불가 등을 만들어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 선지식 백용성 조사께서 탄생하신 곳입니다. 또 지금은 번암면 백용성조사 탄생 성지에 도문 스님이 즉립정사를 세워 그 뜻을 잇고 있는 유서 깊은 '불교의 고장'입니다. 그만큼 우리 불자회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특히 용성 조사의 10대 유훈 중 첫 번째 '나라에 충성하라'라는 유훈을 제일 가까이서 듣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모시고 공불련 '제2차 수계법회'를 성대히 개최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불자들의 깔끔하고 똑 부러지는 일처리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올 5월부터는 회원 간 사이버 공간 확보를 위해 다음 카페도 개설했습니다. 오는 9월 창립 2주년을 앞두고 문을 열었습니다. 명칭은 '장수공무원불교모임(cafe.daum.net/angbul)'으로 다양한 메뉴얼을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 터, 가입사, 법회 공지사항, 법회 후기, 가뭇만한 곳, 불교 상식, 기본교리 등으로 꾸몄습니다.

'백용성 조사 탄생한 불교의 고장' 공지

다음카페 개설...서로 배우고 의견 나눠



△최근 문을 연 '장수군청 불자회 다음카페' (사진 현)

△올 6월 영천 민물사를 참배한 전북 장수군청 불자회원 및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이태)



우리 불자회(회장 백사인·장수 보건의료원)는 지난 2001년 9월에 창립했습니다. 장수군청 소속의 공무원 중 부처님 법을 배우고 따르고자 33명이 뭉쳤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법회를 꾸준히 여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불자회원들은 바쁜 업무도 문제였지만, 불교기초교리도 잘 몰라 허둥대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하나 불교를 배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1회 관내 사찰을 순례하면서 예불과 스님법문, 참선 등의 실행활동을 전개했고, 상·하반기에는 전국의 유명사찰을 찾아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지난해였던가요? 6월 2일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의 지도법사인 즉립정사 주지 도문 스

특히 회원 가입 시 네티즌을 법문으로 하기로 약속해 법명을 불러보는 기회도 가지는 것은 물론, 개인이 알고 있는 정보나 부처님 말씀, 여행 중 인상 깊었던 곳 등을 소개해 회원들의 효용도가 높습니다. 이제는 비탈자 회원들까지 가입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만남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수군청 불자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 사회봉사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공무원 불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실행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수군청 불자회는 더욱 더 정진할 것입니다. ■유인선 재무

우리 모임예선

제주경찰청불교회 6월 18일 재창립

제주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오영기)는 6월 18일 제주도 제석사에서 경승실장 제석사 종호스님, 약천사 원조스님, 오라선원 재용스님을 비롯한 바라밀 합창단, 불교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열었다.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구도회 창립

서울구치소 불심회(회장 이남수)는 6월 23일 청사 3층 강당에서 의왕시 청계사 주지 성원 스님을 법사로 불심회 정기법회와 경비교도대 구도회 창립법회를 병행했다.

단체장



정기법회, 원명 스님 법문
강재형 대구광역시 유마회장은 3일 대구 관음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주지 원명 스님에게 법문을 들었다.



대구 최정서사 정기법회
이동락 대한중석초경 석불회장은 1일 대구 최정서사에서 정기법회를 갖고 경북포교사단 김순신 포교사로부터 법문을 들었다.



조계사 소설법전서 법회
이준성 국제청 보리회장은 6월 20일 서울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법회를 열고, 조계사 총무 도림 스님에게 법문을 들었다.



장애아 시설 상락원 방문
정진호 우리는 불 불자회장은 12일 서울 장애아 보호시설 상락원을 방문,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불행하게 합니까! 그 모든 고통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늘 땅 맑은 기운이 머무는 곳!

계룡산 천왕봉의 정기가 머무는 도량!

도학사 산중 수련회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니다

지금 까지 모든 수행법을 통해서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신 분들만 특별히 모십니다.

1. 수행과정소개

개인 및 단체가 또는 가족 단위로 주말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생명영수의 수행과정입니다.

각 실행단계, 직장단체, 각종 사회단체, 체육선수 내 외국인 단체 등 진정한 수행법을 알고 싶은 모든분들 모심.

* 단체 (20인 이상 기준) 별도 조정

2. 참가회비

- ◆ 2박 3일 : 10만원
- ◆ 3박 4일 : 12만원
- ◆ 4박 5일 : 15만원
- ◆ 1 개 월 : 60만원

3. 수행일과표

| 시간 | 내용 | 시간 | 내용 |
|--------|-----------|----------|----------|
| 4시 | 기상, 예불 | 오후 2시 | 불교기초교리 |
| 5시 | 선재조 및 참선 | 오후 3시 | 무술수련 |
| 7시 | 아침공양 | 오후 5시30분 | 저녁예불 |
| 8시30분 | 온력 | 오후 6시 | 저녁공양 |
| 10시 | 무술수련(태극권) | 오후 7시 | (대체의학강의) |
| 11시 | 위빠사나 수행 | 오후 9시 | 취침 |
| 12시30분 | 점심공양 | | |

4. 개강일 : 2003년 6월 17일 이후 년중무휴

5. 참고사항

- (가) 매주 토요일 주저스님의 면담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나) 입과 후 개인외출 및 술 담배는 일체허락하지 않습니다.
- (다) 규칙을 어길 경우 일정제재나 퇴소조치됩니다.

6. 접수처

☎ 041-857-0830,

주지스님직통 ☎ 041-853-0830, 016-726-0830

7. 준비물

필기구, 세면도구, 운동화

8. 신청기간

단체는 3일전에 예약 개인은 수시접수

9. 입금처

국민은행 479-21-0198-177 (예금주: 권민주)

찾아오시는길

충남 공주 터미널 하차 하시면 참선, 윗바사나, 실전문술(태극권) 전문수행도량 차량운행

※ 공양주 모집 : 00명

대우 : 80만원 한달 2회 휴무

한의학, 대체의학, 미음공부하실분 특이헌영

※ 부전스님도 모십니다.

※ 중무소에서 일하실 경리사무원(1명) 구합니다.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86-1번지

도학사 도학선원 주지 光明道眼



함박재 가시오가피

충청남도 '양토지적계산' 입니다.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자 김훈구 대표

함박재 농장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재배한 100% 국내산 입니다.

20년동안 국내산 가시오가피 실리가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함박재농장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산56)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다릅니다!

■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 가시오가피 러시아,중국에서도 국가에서 적극 보호하는 국가보호수입입니다.

■ 진품을 구하기 힘든 가시오가피 미국 대체의학의 제1인자인 인드류 와이 박사하는 가시오가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 최고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국내산 가시오가피 독일 뮌헨대학의 천연물연구소 소장인 바그너박사는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유효성분이 러시아, 중국산보다 4-6배 많음을 발표했습니다.

자매품 함박재 통종소가피

함박재농장에서 재배한 100% 국내산입니다.

1박스 100ml x 60포, 132,000원

2년 연속 으뜸상품 선정

한국표준협회, 으뜸상품 제308호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02) 2274-2191